

최대 400만원 할인·무이자 할부… 車업계, 연말 ‘고객잡기’

완성車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대목 앞두고 ‘판촉 경쟁’ 드라이브
공식 축제기간 포함 한 달 동안 진행
현대차, 코나·그랜저 등 23개 차종
기아, K5·카니발 최대 7% 혜택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최대 쇼핑 축제로 꼽히는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차량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내수 부진을 겪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판촉 경쟁에 나선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KGM모빌리티, 르노코리아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기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공식 개최 기간은 11~30일까지 20일이지만 업체는 공식 축제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르노코리아.

현대차는 전기차 3종을 포함한 승용·RV(레저용 차량) 21개 차종 2만 3000대, 상용 2개 차종 1500대에 대한 할인을 진행한다. 주요 차종별로 캐스퍼 최대 17%, 코나 최대 200만원, 팰리세이드 최대 10%, 그랜저 최대 400만원, 제네시스 G80 최대 10%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상용 차량은 파비스

최대 500만원, 마이티 최대 400만원 할인된다.

전기차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제조사 할인 혜택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200만원 증가된다. 아이오닉 5 최대 600만원, 아이오닉 6 최대 600만원, 코나EV 최대 400만원의 구매 혜택이 제



현대차 ‘2023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

공된다.

기아는 K5(하이브리드 포함) 최대 7%, 카니발(카니발 하이리무진 포함) 최대 7%, 봉고EV 최대 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물량은 3개 차종을 합해 6000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EV 세일 페스타’의 제조사 할인 혜택도 이번 축제를 맞아 추

가 할인을 이어간다고 했다. EV6 최대 420만원, 니로EV, 니로 플러스 최대 700만원 할인된다.

KGM모빌리티도 11월 중 차량을 구매했을 때 KG M포인트를 준다. 더 뉴 티볼리(에어 포함) 최대 300만 포인트, 코란도·토레스 최대 50만 포인트, 렉스턴 뉴 아레나 최대 200만 포인트, 렉스턴 스포츠칸(쿨멘 포함) 최대 15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도 2024년형 QM6 최대 390만원, 2024년형 XM3 최대 210만원, SM6 TCe 300 최대 44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르노코리아 11월 판매 조건의 특징은 고객이 선호하는 할인 조건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 선호에 따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 할인을 미리 적용 받아 현금 또는 할부 구매하거나, 0.9% 초저리 혜택을 적용해 차량을 할부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AI 3대 서비스로 5000억 시장 공략

AICC 서비스 등 B2B 시장 정조준 “B2B 플랫폼으로 시장 선도할 것”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플랫폼(AICC) 서비스와 소상공인 AI 솔루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용(B2B)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AICC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AICC 온프레미스(On-Premise), 유플러스 AICC 클라우드, 우리가게 AI 등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공략한다고 1일 밝혔다.

챗GPT로 AI가 전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AICC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AICC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해 2030년에는 약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뚜렷한 선도사업자가 없는데다 공공기관·금융·보험사부터 유통, 병원, 여행 등 적용 범위가 방대해 ‘황금알’ 시장으로 불린다.



LG유플러스가 대기업 주요 타겟으로 한 ‘유플러스 AICC 온프레미스(On-Premise)’, 중견·중소기업을 중점으로 한 ‘유플러스 AICC 클라우드’,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가게 AI’ 등 AI 3대 서비스로 역량을 집중해 B2B 시장을 공략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특히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유무선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ICC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AI 역량을 AICC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

과 LG CNS와 ‘원-LG AICC’를 구축하고 LG그룹사 AI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엑사원 2.0과 협력해 AICC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에는 자체 개발한 익시젠(IXI-GEN)도 선보일 계획이다.

익시젠은 LG유플러스의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대형언어모델(LLM)로, 향후 B2B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 LLM이 구축되면 AICC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다수의 콜센터 인프라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통해 고객센터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다져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사 AI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B2B AI 플랫폼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 IT부문 집중 채용… SDV 전환 가속

IT관리·SW 아키텍트 등 총 27개 분야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체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IT 전 부문에 걸쳐 집중 채용 기간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채용은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현대차그룹의 SDV 비전 아래 IT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한 차

원이다.

채용 분야는 총 27개로 ▲IT 관리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자 ▲모바일 App 개발 ▲SW 아키텍트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이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 세부 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SDV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역량 있는 IT 인재를 적극 모집함으로써 자체적인 IT 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모바일 및 커머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고객 관리 채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IT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제작, 생산, 판매, 운행, 중고 거래 등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차량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IT 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도 갖추고 있다. 특히 수평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집중 채용 기간은 평소 현대차 채용에 관심있던 우수 인재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KT,인니 新수도 ‘스마트시티’로 만든다

사이버 보안 등 ICT 기술 활용

KT(대표 김영섭)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텔콤(Telkom)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 과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의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신수도인 누산타라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의 민관 협력 수주지원단인 국토부 ‘원팀코리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KT는 이번 MOU를 통해 KT의 스마트 시티, 양자 암호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ICT 기술과 인도네시아 유무선 1위 통신사업자인 텔콤의 고객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합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컨설팅을 통해 신수도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왼쪽)과 리잘 악바르 텔콤 신수도 태스크포스장(오른쪽)이 30일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 사업 확산에 대해서도 공동 TF를 만들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흘러져 있는 도시 데이터를 분석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남영 기자

SK가스,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SK가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시행하는 ESG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1일 SK가스는 SK가스는 올해 환경, 사회 A+ 등급, 지배구조 A 등급을 획득해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K가스의 등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A+ 등급으로 한 단계 향상됐다. 올해 평가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19개사로 상위 2.4%

에 해당한다.

SK가스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TCFD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위기·기회 요인, 재무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사 안전과 인권향상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하정운 기자 zelkova@